

해남서 간척지 채소재배 첫 성공

마늘·쪽파 1만6000평 오는 6월 수확 간척지 작물 다양화 농민들 소득기대

염도가 높은 간척지에서 채소류 등 밭작물 재배가 성공을 거둬 간척지 농민들의 소득향상이 기대된다.

22일 바울 영농조합(대표 김성수)에 따르면 해남군 산이면 대진리 영산강 2-1지구 1만6000여평의 간척지에 지난해 11월에 마늘(1만8180㎡)과 쪽파(3만3000㎡)를 옮겨심어 오는 6월 수확을 앞두고 있다.

현재 벼농사외에 옥수수, 조 등의 곡물과 사료 대체작물의 시험재배는 성공(새만금 간척지)했으나 채소작물에 대한 성공사례는 없다. 일반적으로 간척지 토양은 염분이

0.3퍼밀(‰:1000분의 1) 이상으로 벼농사도 짓기 어렵다. 앞서 영농조합은 지난해 4월부터 화훼(국화·물망초·꽃잔디)와 수박·토마토, 사과 포트 시험재배에 성공했다.

직접 시험재배에 참여한 해남땅끝농수산업(주) 진형철(54) 대표는 "이러한 결과는 염분을 분해·억제시킬 수 있는 미생물과 토양 개량으로 가능했다"며 "그동안 간척지 토양은 염분과 토질성분이 미세한 감염질토로 구성돼 있어 뿌리 활력이 중요한 채소 작물에는 재배가 어렵다는 일반적 인 생각을 뒤집었다"고 말했다.



김성수 바울영농조합 대표(왼쪽)와 진형철 해남땅끝농수산업(주) 대표가 해남 산이면 간척지에서 시험재배한 마늘 생육상태를 살펴보고 있다.

현재 영농조합의 마늘과 쪽파는 목포대로 부터 친환경 인증을 받아 농심 메가마트 등에 전량 판로를 확보했다. 가격 역시 마늘은 일반마늘의 1.7배, 쪽파는 4배 정도 비싸게 계약했다. 바울 영농조합 김성수 대표는

"FTA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농민들에게 고품질 다수확 간척지 대체작물 개발을 통해 국내뿐만 아니라 수출작목으로 개발할 수 있다"며 "정부차원의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전남도 말산업 육성 30억 투입

담양 경마장·곡성 돔 승마장·신안 해변 말축제

전남도가 학생들의 승마 체험과 말산업고(高) 지원 등 말산업 육성에 30여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사업별로는 한국마사회 특별직립금 사업으로 초·중·고 학생 11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승마체험에 4억1000만원, 장흥 대덕중고 말복성화사업에 10억원, 농어촌 유소년 승마단 2개소 창단에 3억2000만원, 국제농업박람회 친환경경축산 홍보관 운영에 1억5000만원, 입자도 해변말축제

에 70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또 마필 육성 공모사업으로 장흥에 공공승마장 1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곡성에도 말 구입자금 등 14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특히 올해 학생 승마체험은 전남도 교육청에서 전국 최초로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자라나는 학생들의 승마체험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승마체험은 일부 지자체에서 소규모로 방과 후 학습으로 실시했으나

해부터는 전남도 전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해 모든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는 지난 2004년부터 승마장 5개소를 지원하는 등 승마장 확대에 노력중이며, 특히 말산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해 지역 간 균형발전 차원에서 담양에 제5경마장 유치, 곡성에 국제적 돔승마장, 장흥에 말육성단지 조성, 신안에 말축제 등을 특색화해 육성할 방침이다.

/정팔수기자 bungy@kwangju.co.kr



나대용장군 동상 제막

(사)체임 나대용장군 기념사업회(이사장 나무석)는 지난 21일 장군 탄생지인 나주시 문평면 오룡마을 오룡마을 소총사에서 추모 제향과 동상 제막식을 가졌다. 나 장군(1556~1612)은 임진왜란 당시 수군(水軍) 장군이자 거북선 건조 책임자였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ung@



행복나눔운동 새출발 다짐대회 전남농협, 농업단체 봉사단 발대식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가 새농민 전남도지회·농가 주부모임 전남연합회·고향 주부모임 전남도지회 등 농업인 관련단체와 손을 잡고 연중 지속적인 '나눔 운동'을 통해 행복한 농촌 건설에 발 벗고 나선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20일 지역본부 2층 대강당에서 농협 임직원과 농업 관련단체 시·군 회장단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복나눔, 아름다운 동행'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자원봉사단 발대식과 행복나눔운동 새출발 다짐대회를 가졌다. <사진> 행복나눔 운동은 ▲노인복지 서비스(이·미용, 경로당 청소, 의료지원) ▲다문화가정 지원(기초 농업교육·친정부도 인연맺기·다문화여성 대학) ▲취약농가 지원(주거환경 개선·생필품

지원) ▲청소년 교육(어린이 학습방·인재육성장학금 등)으로 지원 분야를 구분하고, 분야별 세부활동 내용을 정해 연중 지속적인 나눔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남지역본부는 시·군별로 농협 임직원과 관내 농업 관련단체가 포함된 '행복나눔 봉사단'을 발족해 지역에 맞는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나눔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

조영조 전남지역본부장은 "나눔은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실현하고, 활기찬 전남 농촌을 만드는 최선의 길"이라며 "지역별·산발적으로 진행되는 나눔 봉사활동을 조직화하고 체계화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어려운 농촌 이웃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연예인 40여명 투자 '스타 리조트' 무안 망운면 피서리서 기공식

중견 유명 연예인들이 직접 투자하고 실명으로 운영하는 복합 리조트가 무안에 들어선다.

무안 스타리조트(주)는 최근 무안 국제공항과 톨마리 해수욕장 인근 망운면 피서리에서 '무안 스타 톨마리 휴양지' 기공식을 가졌다.

기공식에는 이윤석 국회의원을 비롯해 탤런트 이덕화·백일섭·유동근·박은수·송경철·이동준과 가수 남진·설은도·박일남·정원·체리보이, 개그맨 한무·김한국·최병서·황기순 등 중견 연예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스타 리조트(주)는 TV 드라마 '전원일기'의 부녀회장역을 맡았던 이수나씨가 대표를 맡고 있다.

스타 리조트는 대지 1만9470㎡에 4개동 132실 규모로 호텔식 별장 숙박 시설과 라이브 카페, 코미디 클럽·워터파크·테라피 등 볼거리와 먹거리, 놀거리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영화 배우 송경철(무안양과 한우전문점)·탤런트 이동준(라이브 카페)·개그맨 한무(한방차집) 등 40여명의 유명 연예인이 투자자로 나섰다.

이수나 대표는 "연예인이 직접 투자해 실명으로 운영하는 호텔식 별장형 숙박시설과 라이브 카페, 코미디 클럽, 테라피 등의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 놀거리 중심으로 제2의 미사리와 같은 문화공간으로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김민준기자 jun@

남평 공공도서관-나주병원 독서문화 활성화 협약

남평 공공도서관이 국립 나주병원과 손을 잡고 지역사회 독서문화 활성화에 나섰다.

남평 공공도서관과 국립 나주병원은 최근 독서문화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남평 공공 도서관과 국립 나주병원은 상호 협력으로 지역사회 복지여건을 개선하고, 병원 환우들의 정신장애 재활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과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에 이어 국립 나주병원 치료팀과 환우들이 함께 어울려 맞추는 독서 퍼즐 대회를 가졌다. 퍼즐 대회는 '책~ 귀로 들어보자! 오디오북 시연회를 비롯해 글썽해 지도사 과정 동아리 팀의 '그림책 읽어주기, 감명 깊은 책에 대한 느낌 쓰기 등 다채롭게 진행됐다. /중부취재본부=정철현기자 chung@

순천시 '임나일본부설' 반박 유물 출토

운평리 고분군 대가야계 유물 200여점 발굴

일본 사학계가 주장하는 '임나일본부설'(任那日本府說)의 허구를 입증할 수 있는 유물이 순천에서 대거 출토됐다.

순천대 박물관은 전남도와 순천시의 예산 지원으로 지난 2006년과 2008년에 이어 '순천 운평리 고분군' 발굴 3차 조사를 실시했다.

순천 운평리 고분군은 전남 동부지역에서는 유일하게 고종이 있는 대규모 가야계 고분군이다.

조사결과 2기의 가야계 고종 고분과 6기의 목곽묘가 확인됐으며, 대가

야계 순금제이식(純金製耳飾)·마구류(馬具類)·대도(大刀)·격포·토기류·옥 등 200여점의 유물이 출토됐다.

일본은 그동안 '임나사현'(任那四縣)에 근거해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임나사현'중 하나인 순천의 '사타국'의 지배층 무덤에서 일본계 유물이 아니라 대가야계 유물이 대거 출토됨에 따라 일본의 '임나일본부설'이 후대에 조작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 고대사학계는 '임나사현'에 대해 섬진강 서안의 전남 동부권(순



주각출토유물

천·광양·여수)으로 보고 있다.

순천시는 지난 20일 운평리 고분군 일대 발굴 완료에 대한 자문화의를 열고, 앞으로 운평리 유적의 국가(도) 지정문화재 지정 신청과 체계적 정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동부취재본부=예정영기자 jyj@

고흥 비전 5000 프로젝트

모두가 잘사는 고흥을 위한 힘찬 도전!

비전5000프로젝트란 : 심각한 고령화와 경기침체, FTA 등으로 농림수산업 피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지금, "우리지역의 희망은 곧 농림수산업을 살리는 것이라 믿고 이에 실질적인 농·림·어가의 소득향상을 위한 대책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군정은 물론 모든 군민의 참여를 이끌어내 「다 함께 잘 사는 고흥」 만들기"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고흥군의 역점 특수사업입니다.

농림어업인과 군민모두, 2012년 행복한 고흥만들기! 함께하면 이룰 수 있습니다

사진설명: 2011년 12월 소록도와 거금도를 잇는 '거금대교'가 개통했습니다.